

美 연비 규제 완화 신호탄…광주 EV5 ‘기회’ 열리나

트럼프, 기업평균연비제 완화…신차 연비 기준 대폭 하향
EV5 美 수출은 미정…직접 호재보다 ‘전략적 선택지’ 확대

미국 행정부가 신차 평균연비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세계 완성차 업계의 미국 시장 전략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동화 속도를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면서 광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인 기아 EV5 역시 중장기적인 미국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주간 이슈 리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완화해 2031년 신차 평균 연비 목표를 기존 21.4km/l에서 14.6km/l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완성차 업체들의 규제 대응 비용을 낮춰 신차 가격을 대당 약 1000달러 인하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1090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에 따라 전기차 전비를 내연기관 연비로 환산하는 방식 역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2026년까지는 1갤런(3.795412 l)당 82kWh를 적용하고 2027년에는 갤런당 80kWh, 2028년 50.4kWh, 2029년 36.8kWh, 2030년에는 29kWh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번 조치는 완성차 업체들이 단기간 내 전기차 비중을 급격히 확대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연비 목표

를 설정하는 방식 자체가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정하는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 광주에서 생산되는 EV 5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EV5의 미국 시장 수출 시점과 물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EV5가 전기 SUV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공간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연비 규제 완화로 전동화 전략의 속도와 방식에 선택지가 생긴 점 역시 EV5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EV5가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향후 EV5의 미국 수출이 본격화할 경우 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 전반은 물론 협력업체 물량 확대, 고용 안정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광주공장이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연비 규제 완화는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전략이 재조정되는 신호”라며 “EV5 역시 당장의 수출 여부를 떠나 미국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HS효성더클래스, 벤츠 코리아 바디빌더 선정

더 벤·세화자동차 이어 세 번째

마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내 벤(van) 판매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세 번째 바디빌더사로 ‘HS효성더클래스’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구동계와 차체로 구성된 기본 형태의 벤츠 스프린터를 수입해 계약된 바디빌더에 판매한다. 바디빌더는 구매자 요청에 따라 차량 내부의 특장 작업을 거쳐 리무진, 셔틀, 캠핑카 등다

양한 용도로 판매한다.

HS효성더클래스는 기존 바디빌더인 ‘더 벤’과 세화자동차에 이어 새 바디빌더로 합류했다.

HS효성더클래스는 지난 8일부터 벤츠 강남대로 전시장과 송파 전시장에서 스프린터 투어러 등 벤 라인업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벤츠 서초, 죽전, 청주 서비스센터에는 벤 전용 워크베이를 설치해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 브랜드 팬덤 ‘현대모터클럽’ 10주년 행사

현대자동차는 “현대모터클럽”的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모터클럽은 회원 12만 4000명을 보유한 현대차 공식 브랜드 팬덤이다.

현대차는 현대모터클럽의 활동을 지원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현대차의 제품 경쟁력과 차별화된 가치를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 관심

이 많은 고객들의 비판과 피드백을 수용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왔다.

김승찬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은 “현대모터클럽이 글로벌 현대자동차 브랜드 팬덤을 이끄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고령·이륜차 사고 줄인다…TS, 교통안전 안내서 배포

운전 관련 제도 등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고령 운전자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안내서 1만 1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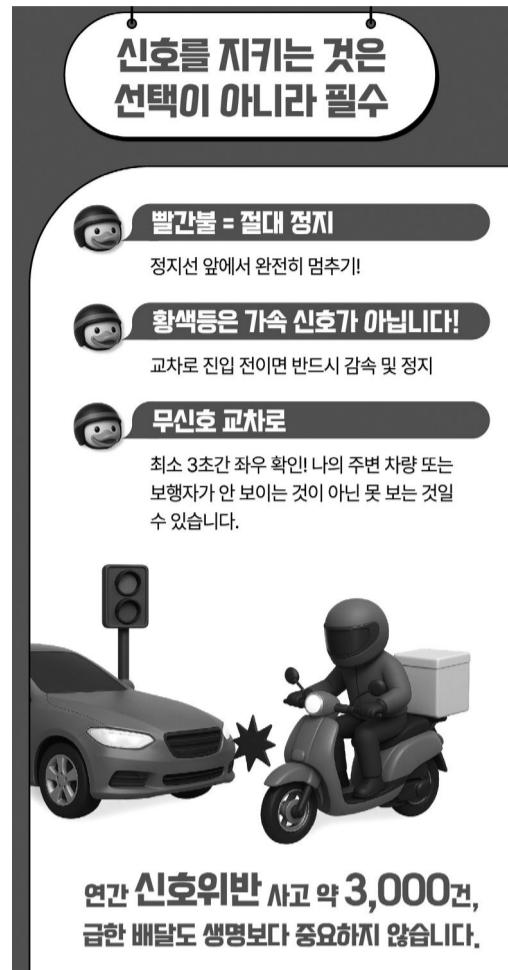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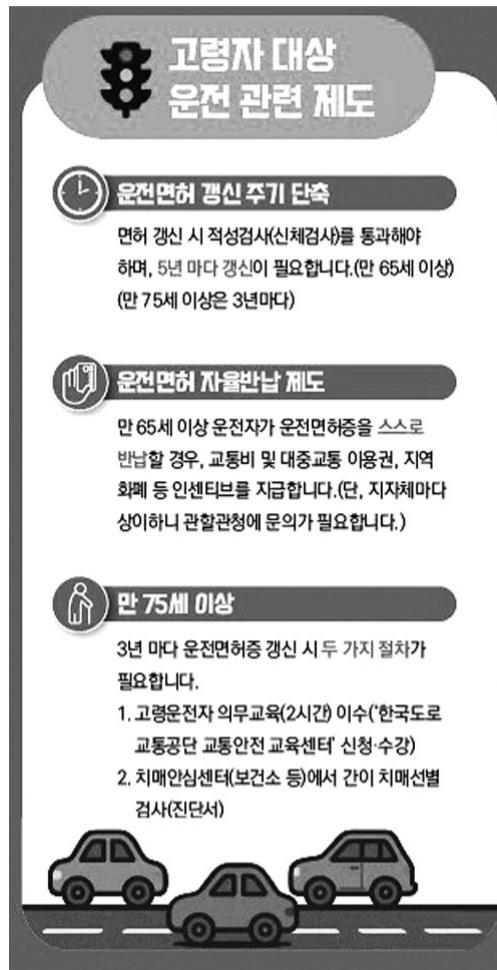
안내서는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가이드와 이륜차 운전자가 이드 등 2가지 유형으로 제작됐다.

고령 운전자 안내서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에 대비한 안전 운전 요령과 고령자 대상 운전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TS는 고령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해 컨디션 이 좋지 않을 때는 가급적 운전하지 않기, 야간이나 나쁜 기상 상황 후에는 운전 자제하기, 운행 전 안전띠 착용,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기 등 방어운전 습관 기铎를 당부했다.

이륜차운전자에게는 보호장구 착용, 사고 발생 위험 요인, 운행 전 점검 사항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고령자·여린이 등이 다니는 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차량 사이 끼어들지 않기, 우회전 차량에 불지 않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TS는 TS지역본부와 김천시 관내 복지회관, 노인종합지원센터, 운전면허 관련 민원시설 등 고령자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안내서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밀집도를 고려해 수도권에는 더 많은 안내서를 배치할 예정이다.



연간 신호위반 사고 약 3,000건, 금한 배달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교통안전 안내서는 생활 속에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교통사고 유형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안내서를 제작해 ‘교통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위아, 전기차 통합 열관리 시스템 사업 본격 확대

EV 열관리 양산 100일 기념

2027년 PV7에도 공급 계획

현대위아는 “자동차 통합 열관리 시스템 사업 확장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견고한 공급망 생태계를 갖추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현대위아는 지난 11일 전기차(EV) 통합 열관리 시스템의 양산 100일을 기념해 창원시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열관리 시스템 양산 기념식’을 열었다.

〈사진〉

현대위아는 지난 7월부터 전기차용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생산해 기아 PBV(목적 기반 차량)인 PV5에 공급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 열관리 시스템 중 공조 시스템 핵심 부품인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Unit)을 자체적으로 개발·양산 중이다. HVAC은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를 차량 내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온도로 바꿔 제공하는 열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



품이다. 현대위아는 공기와 냉각수 등을 차갑게 식히는 쿨링모듈(CRFM·Condenser Radiator Fan Module)도 개발해 양산 중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별도 열원이 없어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현대위아는 온도와 압력이 낮은 냉매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순환하도록 하는 ‘전동식 컴프레서’와 냉매를 외부 공기와 교환해 난방하는 ‘실내 콘덴서’ 등을 개발했다. 또 내연기관 공조시스템보다 부품 수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열관리 시스템의 모듈화로 편의성을 최적화했다.

현대위아는 열관리 시스템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공급 중인 기아 PV5를 넘어 2027년 양산 예정인 기아 대형 PBV인 PV7에도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부터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도 개발해 현대자동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